

D램, 공급부족 우려로 “급등”

1월 0.92달러로 10.8% 뛰어올라 ... PC용 감축 전망으로

D램 가격이 PC용제품의 생산 감축으로 공급부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급등했다.

시장에 따르면, D램익스체인지는 DDR3 2Gb(기가비트) 256Mx8 1333MHz의 1월 상순 고정거래 가격을 0.92달러로 책정했다. 12월 하순 기록한 0.83달러보다 10.84% 오른 가격이다.

해당제품은 2010년 9월 4.34달러를 기록했으나 PC 시장 악화와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추락해 2012년 11월 사상 최저가격인 0.80달러를 기록한 뒤 2개월째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D램 가격 급등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공급기업들의 PC용 D램 생산 축소로 2013년 하반기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PC 생산기업들이 재고확보에 나선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경제 불황으로 PC 시장 회복이 불투명해지면서 D램 공급기업들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D램 생산을 늘리는 대신 PC용 D램 생산량을 줄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PC 생산기업들이 2012년 4/4분기부터 재고를 확충하는 등 한발 앞서 반응하고 있어 D램 가격은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D램익스체인지는 예상했다.

DDR3 4GB(기가바이트) SO-DIMM 1333/1600MHz는 17.25달러로 12월 하순보다 9.52% 올랐고, DDR3 2GB SO-DIMM 1333/1600MHz도 9.75달러로 8.33% 상승했다.

약세를 보이던 낸드플래시도 강보합세로 돌아섰다.

낸드플래시 64Gb(기가비트) 8Gx8 MLC의 평균 고정가격은 5.00달러로 0.40% 올랐으며, 32Gb 4Gx8 MLC는 2.51달러로 1.62% 상승했다.

낸드플래시 역시 공급기업들이 공급억제 전략을 유지한 가운데 성수기인 중국의 설 연휴에 대비한 재고 확충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16>